



2020 대입 정시전형 이해와 대비



1 일정 및 특징

가 정시모집 일정

구 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수능 시험일			2019. 11. 14.(목)	2018. 11. 15.(목)
수능 성적 발표일			2019. 12. 4.(수)	2018. 12. 5.(수)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19. 11. 30.(토)	2018. 11. 30.(금)
정시 모 집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중 3일 이상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20. 1. 2.(목) ~ 10.(금) (9일)	2019. 1. 4.(금) ~ 1. 11.(금) (8일)
		나군	2020. 1. 11.(토) ~ 19.(일) (9일)	2019. 1. 12.(토) ~ 1. 19.(토) (8일)
		다군	2020. 1. 20.(월) ~ 30.(목) (11일)	2019. 1. 20.(일) ~ 1. 27.(일) (8일)
	합격자 발표		2020. 2. 4.(화) 까지	2019. 1. 29.(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20. 2. 5.(수) ~ 7.(금) (3일)	2019. 1. 30.(수) ~ 2. 1.(금) (3일)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20. 2. 17.(월) (합격자 발표 21:00 까지)	2019. 2. 14.(목) 21:00 까지
	미등록총원 등록 마감		2020. 2. 18.(화)	2019. 2. 15.(금)
추가 모 집	원서접수&전형일 &합격자 발표		2020. 2. 20.(목) ~ 27.(목) 21:00 까지	2019. 2. 17.(일) ~ 2. 24.(일) 21:00 까지
	등록 기간		2020. 2. 28.(금)	2019. 2. 25.(월)

나 정시모집의 특징¹⁾

-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22.7%(전년도 23.8%)인 79,090명(전년도 82,972명)으로 모집인원이 꾸준히 하락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3,882명(1.1%p)이 감소하였다.

〈최근 3년간 정시전형 모집인원 변화〉

구 분	모집인원(명)	비율(%)
2020 대입	79,090	22.7
2019대입	82,972	23.8
2018대입	92,652	26.3

- 수사에서 미등록된 수험생의 정시 이월을 고려하더라도 22.7%의 모집 비율은 정시 모집인원의 꾸준한 하락세로 인해 역대 최소 모집 비율임을 알 수 있다.
- 영어 영역 절대평가가 처음 실시되었던 2018학년도 대입 정시에서는 1등급 비율이 10.03%로 쉽게

1) 자료집에 제시된 인원은 2018. 5. 1.(화)에 발표된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의 보도자료 기준으로써 실제 모집인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제되었으나, 2019학년도 대입 정시에서는 1등급 비율이 5.3%로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성적 분포 정도의 인원이 나올 정도로 어렵게 출제 되었다. 영어 영역의 널뛰는 난도와 상관없이 대학별 다양한 반영방법으로 인해 정시에서의 유·불리 예측은 여전히 쉽지만은 않았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역대 최고로 평가받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면서(영어 영역 포함)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증가되었다.
- 2018학년도 8월에 발표되었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서는 수능위주전형 30%이상을 선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모집 인원의 감소로 인해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년도 재학생(2000년도에 태어난 밀레니엄 베이비)의 수능 응시인원 확대로 인해 정시에서의 경쟁률 상승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결과는 수도권 17개 대학 기준으로 볼 때 2018학년도 정시 경쟁률보다 약간 하락된 결과가 나타났다.

2 군별 모집인원 및 대학

가 정시모집 군별 모집인원(비율)

- (가)군과 (나)군의 모집인원이 전체의 75.4%이므로 (가)군과 (나)군 중에서 희망 안정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시모집 군별 모집인원(비율) 비교〉

구분	(가)군		(나)군		(다)군		계(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2020	28,567	1,180	29,099	761	18,675	808	79,090
	29,747(37.6%)		29,860(37.8%)		19,483(24.6%)		
2019	29,551	1,225	30,265	778	20,375	778	82,972
	30,776(37.1%)		31,043(37.4%)		21,153(25.5%)		
2018	30,805	1,532	33,763	1,385	24,112	1,055	92,652
	32,337(34.9%)		35,148(37.9%)		25,167(27.2%)		

- 감소인원으로만 비교해 보면 (가)군이 1,029명으로 가장 적지만 비율을 살펴보면 오히려 0.5%가 상승되었으며, (나)군은 1,183명이 감소하였으나 (가)군과 비슷하게 0.4%가 상승하였다. (다)군은 0.9% 비율인 1,670명이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 적은 인원 차이지만 (가)군은 자연계열 인원이 (나)군보다 더 많고, 인문계열 인원은 (나)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더 많다.

〈2020 대입 정시모집 군별 계열별 모집인원(비율) 비교〉

구분	(가)군			(나)군			(다)군			합계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인문	자연	예체
인원 (명)	10,980	13,466	5,301	13,495	11,670	4,695	9,439	6,909	3,135	33,914	32,045	13,131
비율 (%)	13.7	16.9	6.6	16.9	14.6	5.9	11.8	8.6	3.9	37.4	46.0	16.6

나 정시모집 군별 모집대학

〈정시모집 군별 모집대학 현황〉

구분	(가)군	(나)군	(다)군
2020학년도	138개교	138개교	121개교
2019학년도	137개교	136개교	123개교

(가)군	(나)군	(다)군
<p>〈국공립〉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p> <p>〈사 립〉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서울), 건양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광신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김천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국대(서울),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성결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숙명여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영남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신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충신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협성대, 호남신학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세종)</p>	<p>〈국공립〉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전남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p> <p>〈사 립〉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광주대, 광주여대, 국민대, 극동대, 꽃동네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공회대, 성공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앙승가대, 차의과학대, 청주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서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홍익대(서울)</p>	<p>〈국공립〉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인천대, 제주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한밭대</p> <p>〈사 립〉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극동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대전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신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영남대, 영산대, 영산신학대, 예수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을지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p>
	<p>〈교 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초등교육)</p>	

- 교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년도 (다)군에서 선발했던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2020 대입 정시에서는 (나)군으로 군을 옮겨 선발하면서 (가)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나)군에서 선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대학의 분할모집 현황을 살펴보면 (가)군 21개교, (나)군 21개교, (다)군 17개교, (가/나)군 34개교, (가/다)군 21개교, (나/다)군 21개교, 마지막으로 (가/나/다)군 62개로 (가/나/다)군 전체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전년도에 비해 4개 대학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시모집 군별 분할모집 현황〉

구분	(가)	(나)	(다)	(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
2020학년도	21개교	21개교	17개교	34개교	21개교	21개교	62개교
2019학년도	20개교	22개교	20개교	35개교	24개교	21개교	58개교

분할모집 군	대 학 명
(가)군 (21개교)	경주대, 공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김천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장신대, 서강대, 서울대, 수원가톨릭대, 영남신학대, 이화여대, 제주국제대, 중원대, 창신대, 청운대, 총신대, 한국체육대, 한세대, 호남신학대
(나)군 (21개교)	감리교신학대, 경인교대, 고려대(서울), 공주교대, 광주교대, 꽃동네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연세대(서울), 장로회신학대, 전주교대, 중앙승가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한려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다)군 (17개교)	가야대, 건국대(글로벌), 금강대, 대신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영산대, 영산신학대, 예수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경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한동대
(가/나)군 (34개교)	경북대, 경희대, 광주대, 광주여대, 금오공대, 남부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서대, 동아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숙명여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예원예술대, 용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호원대
(가/다)군 (21개교)	강릉원주대, 경상대, 계명대, 군산대, 나사렛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목포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서울한영대, 성결대, 순천대, 아주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성대, 한신대
(나/다)군 (21개교)	가톨릭관동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운대, 고신대, 극동대, 대구가톨릭대, 동덕여대, 서울기독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경대, 안양대, 위덕대, 인천가톨릭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한라대
(가/나/다)군 (62개교)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서울),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국민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대, 동명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송실대, 신라대, 신한대,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 분할모집으로 선발하는 대학의 경우 계열(인문/자연/예체능 등)에 따라 특정 군에서만 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계열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지원하도록 한다.
- 모집군의 변화는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경쟁대학의 입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모집계열(단위)의 군이 전년도와 다른 경우에는 변화된 입시환경을 잘 파악해 두어야 한다.

3 전형 요소 및 수능활용 지표

- 정시모집은 전체 모집인원인 79,090명의 87.6%에 해당하는 69,291명을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인원 수(72,251명 → 69,291명)는 줄었지만 비율(87.1% → 87.6%)은 약간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형유형별 모집 인원 현황〉

전형유형	2020		2019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수능 위주	69,291	87.6	72,251	87.1
실기 위주	8,968	11.3	9,819	11.8
학생부(교과)	281	0.4	332	0.4
학생부(종합)	436	0.6	445	0.5
기 타	114	0.1	125	0.2
합 계	79,090	100	82,972	100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동일 대학이라도 모집 군이 다르면 ‘학생부+수능’, ‘수능100%전형’ 등 전형요소가 다를 수 있다. 정시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지만 필요에 따라 학생부나 면접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낮더라도 일부 대학의 경우 학생부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학생부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50%이상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6개 대학(인문 5개교, 자연 1개교)으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생부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학은 수능 성적보다는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전형 학생부 반영비율 현황〉

구분	인문	자연
100%	대신대	
60% 이상	전주대, 한국성서대	
50% 이상	청운대, 광신대	대구예술대
40% 이상	고신대, 남부대, 서울한영대, 창신대, 추계예술대, 칼빈대, 한국국제대, 한일장신대	고신대, 남부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30% 이상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광주여대, 세한대, 위덕대, 호남신학대	가야대, 경동대, 광주여대, 세한대, 위덕대, 한일장신대
30% 미만	제주대, 건국대(서울), 경주대, 김천대, 동국대(서울), 동신대, 루터대, 백석대, 서울기독대, 서울신학대, 선문대, 성결대, 송원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을지대, 장로회신학대, 제주국제대, 청주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한양대(서울), 한중대, 호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전북대, 제주대, 건국대(서울), 경주대, 고신대, 김천대, 남서울대, 동국대(서울), 동신대, 루터대, 백석대, 선문대, 성결대, 신경대, 영산대, 예수대, 용인대, 을지대, 제주국제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한려대, 한양대(서울), 한중대, 호원대

- 교대의 경우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학생부를 활용하고 있지만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는 수능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특징이 있다.

나 수능 성적 반영 비율 및 활용 지표

- 정시 전형은 수능 100%를 활용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대다수이지만 60% 이하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대학이 12개 대학(인문 9개교, 자연 3개교)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작은 대학도 있다.
- 서강대의 경우 전년도까지는 수능 성적과 함께 학생부 10%를 반영하였으나, 2020 대입 정시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현황 / 인문계열〉

구분	대학명	합계
100%	〈국공립〉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국공립 : 28개교 사 립 : 105개교 합 계 : 133개교
	〈사 립〉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광주대, 국민대, 극동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유원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80% 이상	〈국공립〉 강원대(사범), 공주대(사범), 순천대(사범), 충북대(사범), 제주대	국공립 : 5개교 사 립 : 31개교 교 대 : 8개교 합 계 : 44개교
	〈사 립〉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운대, 경주대, 고신대, 김천대, 나사렛대, 동국대(서울), 동신대, 백석대, 서울신학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송원대, 순천향대, 신경대, 안양대, 영산대, 용인대, 을지대, 장로회신학대, 조선대, 중부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케이씨대, 한려대, 한세대, 한양대(서울)	
	〈교 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60% 이상	〈사 립〉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고신대, 광주가톨릭대, 광주여대, 극동대, 남부대, 대전신학대, 동명대, 동양대, 부산장신대, 서울한영대, 세명대, 세한대, 수원가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예수대, 위덕대, 유원대, 제주국제대, 중원대, 창신대, 청주대, 추계예술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호서대, 호원대	사 립 : 29개교 교 대 : 2개교 합 계 : 31개교
	〈교 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50% 이상	〈사 립〉 대전가톨릭대, 루터대, 서울한영대, 세한대, 호남신학대	합 계 : 5개교
40% 이상	〈사 립〉 서울기독대	합 계 : 1개교
40% 이하	〈사 립〉 광신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합 계 : 3개교

〈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비율 현황 / 자연계열 〉

구분	대학명	합계
100%	〈국공립〉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국공립 : 29개교 사 립 : 104개교 합 계 : 133개교
	〈사 립〉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서울),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광주대, 국민대, 극동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여대, 서원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세종대, 송원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유원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전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라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80% 이상	〈국공립〉 공주대(사범)	국공립 : 1개교 사 립 : 26개교 합 계 : 27개교
	〈사 립〉 가톨릭관동대, 건국대(서울), 경운대, 경주대, 김천대, 나사렛대, 동국대(서울), 동신대, 목원대, 백석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송원대, 신경대, 아주대, 영산대, 용인대, 을지대, 조선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케이씨대, 한려대, 한양대(서울)	
60% 이상	〈사 립〉 가야대, 경동대, 경주대, 고신대, 광주여대, 극동대, 남부대, 세한대, 예수대, 위덕대, 유원대, 제주국제대, 중원대, 창신대, 청주대, 한국국제대, 한국성서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합 계 : 19개교
60% 이하	〈사 립〉 루터대, 세한대, 창신대	합 계 : 3개교

-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활용하는데 백분위 반영대학이 111개교로 가장 많다.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 주로 백분위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 탐구는 백분위를 반영한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한다.

〈 일반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지표 현황 〉

구분	대학명	합계
백분위	〈국공립〉 강원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제주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국공립 : 14개교 사 립 : 93개교 교 대 : 4개교 합 계 : 111개교
	〈사 립〉 가야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감리교신학대, 강남대, 건국대(글로벌),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광주가톨릭대, 광주대, 국민대, 극동대, 금강대, 김천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동신대, 동양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영남대, 예수대, 용인대, 우석대, 우송대, 위덕대, 을지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조선대, 중부대, 중원대, 차의과학대, 창신대, 청운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케이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동대, 한라대, 한려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대, 호서대	
	〈교 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구분	대학명	합계
표준점수	〈국공립〉 경남과학기술대, 경상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해양대	국공립 : 8개교 사 립 : 24개교 교 대 : 5개교 합 계 : 37개교
	〈사 립〉 경성대,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외대, 상명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신라대, 영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한국국제대, 한국항공대, 한양대(ERICA), 홍익대(서울), 홍익대(세종)	
	〈교 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급	〈사 립〉 경동대, 광신대, 광주여대, 대전신학대, 루터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세한대, 송원대, 유원대, 칼빈대, 평택대, 호남신학대, 호원대	합 계 : 14개교
등급/ 백분위	〈국공립〉 강릉원주대, 목포대	국공립 : 2개교 사 립 : 1개교 합 계 : 3개교
	〈사 립〉 울산대	
등급/ 표준점수	〈사 립〉 고신대, 부산가톨릭대, 아주대	합 계 : 7개교
백분위/ 표준점수	〈국공립〉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국공립 : 4개교 사 립 : 16개교 교 대 : 1개교 합 계 : 21개교
	〈사 립〉 가톨릭대, 건국대(서울),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서울), 동의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교 대〉 전주교대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국공립〉 서울시립대	국공립 : 1개교 사 립 : 5개교 합 계 : 6개교
	〈사립〉 고려대(세종),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울산대, 한국외국어대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영어영역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같이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다. 중앙대의 경우 영어 전년도 영어 가산점을 2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케이씨대의 경우 전년도 7점에서 9점으로 약간 조정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반영 방법 비교〉

영어 영역 성적 반영 방법	2020 대입 정시	2019 대입 정시
최저학력기준	11개교	12개교
비율 반영	167개교	180개교
가점 부여	7개교	10개교
감점 부여	3개교	4개교

유형	서울	경기/인천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제주
가산점	가톨릭대(의예/간호: 10점), 서강대(100점), 성균관대(100점), 중앙대(100점), 케이씨대(9점)			전남대(200점), 전북대(30점)
감점	고려대(-15점), 서울대(-4점)		충남대(-26점)	
가감점		인천대(+30~-30점)		
수능최저	서울교대(3등급)			고신대(의예: 1등급)

※ 상기 대학을 제외하고 영어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은 영어 영역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

4 정시전형 이해와 대비

가 정시전형의 이해

- 2020학년도 정시모집인원은 79,09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47,866명의 22.7%이다. 이는 2019학년도 23.8%(82,972명)의 모집인원 비율에 비하여 1.1%p 줄어든 비율이다. 인원으로는 3,882명이 줄었다. 전체 모집인원이 968명 줄어 든 것과 비교하면 많은 인원이 줄어 든 느낌이다.

〈서울소재 주요대학 2020학년도 정시선발 비율 변화(예체능 포함, 정원 외 제외)〉

대학	정시선발 비율 및 선발 인원				2019대비비율증감 (%p)	인원변화 (명)
	2019		2020			
	선발비율(%)	선발인원(명)	선발비율(%)	선발인원(명)		
서울대	21.8	684	21.8	684	없음	없음
연세대	29.5	1,011	33.1	1,136	▲ 3.6	▲125
고려대	15.8	600	17.3	658	▲ 1.5	▲ 58
성균관대	19.9	705	31.6	1,128	▲11.7	▲423
서강대	20.3	320	30.1	473	▲ 9.8	▲153
한양대	30.3	852	30.9	868	▲ 0.6	▲ 16
이화여대	22.9	694	25.8	783	▲ 2.9	▲ 89
중앙대	26.4	1,145	27.1	1,175	▲ 0.7	▲ 30
경희대	29.2	1,390	30.7	1,459	▲ 1.5	▲ 69
한국외대	30.7	514	35.0	631	▲ 4.3	▲117
서울시립대	35.9	613	37.1	635	▲ 1.2	▲ 22
건국대	34.6	1,171	35.2	1,191	▲ 0.6	▲ 20
동국대	28.4	850	29.0	869	▲ 0.6	▲ 19
홍익대	40.3	1,022	41.9	1,004	▲ 1.6	▼ 18
숙명여대	33.4	733	31.8	697	▼ 1.6	▼ 36
계		12,304		13,391		1,087

- 정시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전형에 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정시에 대비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 2001년 출생자수가 2000년 출생자에 비해 약 8만명 정도가 적으므로 대입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출생자 수(2000~2003)〉

출생 연도	학년 (2019년 기준)	대입시기	출생자(명)	출생자변화(명)
2000	대 1	2019	634,501	
2001	고 3	2020	554,895	-79,606
2002	고 2	2021	492,111	-62,784
2003	고 1	2022	490,543	-1,568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

- 매년 달라지는 수능 난이도와 탐구 선택과목간 불균형 역시 정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문제다. 특히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점수가 상위권에서 매우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원점수(예측), 표준점수, 백분위〉

국어				수학(가)				수학(나)			
원점수	표점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점	백분위	등급	원점수	표점	백분위	등급
100	150	100	1	100	133	100	1	100	139	100	1
98	148	100	1	98	131	100	1	98	137	100	1
97	146	100	1	97	130	99	1	97	136	99	1
96	145	100	1	96	130	99	1	96	136	99	1
95	144	100	1	95	129	99	1	95	135	99	1
94	143	100	1	94	128	98	1	94	134	99	1
93	142	100	1	93	127	98	1	93	133	98	1
92	141	99	1	92	126	96	1	92	133	98	1
91	140	99	1	91	125	94	2	91	132	98	1
90	139	99	1	90	124	94	2	90	131	97	1
89	138	98	1	89	124	94	2	89	130	96	1
88	136	98	1	88	123	90	2	88	130	96	1
87	135	98	1	87	122	87	3	87	129	94	2
86	134	97	1	86	121	87	3	86	128	93	2
85	133	96	1	85	120	86	3	85	127	91	2
84	132	96	1	84	119	82	3	84	127	91	2
83	131	95	2	83	118	79	3	83	126	89	3
82	130	94	2	82	118	79	3	82	125	88	3
81	129	93	2	81	117	78	3	81	124	85	3

- 위의 표 국어영역을 보면 원점수 100점에서부터 93점까지가 백분위 점수 100점에 해당하였다. 백분위 점수는 단순히 인원을 가지고 나타내는 점수로 원점수 93점에 해당하는 학생까지 국어영역의 1%가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백분위 점수가 100점이 산출되게 되었다. 따라서 국어영역에서 상위권 학생의 경우 백분위 100점이 표준점수 150~142점의 9가지의 표준점수가 나타나게 되었고 1등급의 표준점수는 150점에서부터 132점까지 무려 19점의 차이가 났을 정도로 국어영역의 변별력이 매우 컸다.
- 2019 수능에서는 국어영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20수능의 영역별 난이도를 점치기는 어렵지만 난이도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점수 중 어떤 점수를 반영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아래 A,B 학생의 점수는 표준점수 반영이 유리한지 백분위 반영이 유리한지를 예시로 든 상황이다.

A학생					B학생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나형	영어 영역	구 분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나형	영어 영역
표준점수		142	134		표준점수		150	133	
백분위		100	99		백분위		100	98	
등급		1	1		등급		1	1	
	2			2		2			2

- A학생의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표준점수의 합은 276점이고 B학생의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표준점수의 합은 283점이다. 하지만 백분위의 합으로 계산하면 A학생의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백분위 합은 199점이고 B학생의 백분위 합은 198점이다. 따라서 A학생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고 B학생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탐영역 등급별 표준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원점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50	63	64	65	63	65	66	67	69	65			
48	61	62	63	62	64	65	66	68	63			
47	61	62	63	61	63	64	65	67	63			
46	60	61	62	61	62	64	64	66	62			
45	59	60	61	60	61	63	64	65	61			
44	58	60	61	59	61	62	63	65	60			
43	57	59	60	58	60	61	62	64	60			
42	57	58	59	58	59	61	61	63	59			
41	56	58	59	57	58	60	61	62	58			
40	55	57	58	56	58	59	60	62	58			
39	54	56	57	56	57	59	59	61	57			
38	53	56	56	55	56	58	58	60	56			
37	53	55	56	54	55	57	58	60	55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탐영역 등급별 표준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원점수	물리1	화학1	생명 과학1	지구 과학1	물리2	화학2	생명 과학2	지구 과학2			
50	66	67	72	69	66	68	70	68			
48	65	65	70	68	65	66	68	66			
47	64	64	69	67	64	66	68	65			
46	63	63	69	66	63	65	67	65			
45	62	63	68	65	63	64	66	64			
44	62	62	67	65	62	63	65	63			

원점수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43	61	61	66	64	61	63	65	62
42	60	60	65	63	61	62	64	62
41	59	59	65	62	60	61	63	61
40	58	59	64	61	59	60	62	60
39	58	58	63	60	59	60	62	59
38	57	57	62	60	58	59	61	59
37	56	56	61	59	57	58	60	58
36	55	55	61	58	57	57	59	57
35	55	55	60	57	56	57	58	56

- 탐구영역을 반영하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탐구영역에서 표준점수를 백분위 등을 고려해 변환표준 점수로 바뀌서 산출한다. 이럴 경우에 국어, 수학 영역에 비해 탐구영역에서는 과목별 유불리가 상당부분 완화되기도 한다.

〈모 대학의 탐구영역 변환점수표 예시〉

백분위	변환점수	백분위	변환점수
100	65.22	80	60.73
99	65.22	79	60.5
98	65.01	78	60.25
97	64.87	77	60.01
96	64.69	76	59.74
95	64.44	75	59.42
94	64.17	74	59.08
93	63.93	73	58.78
92	63.69	72	58.5
91	63.44	71	58.22
90	63.2	70	57.92
89	62.94	69	57.59
88	62.7	68	57.25

- 2019대입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생명과학Ⅰ 과 지구과학Ⅰ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어려웠던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으면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반영하는 변환표준 점수로 바뀌주면 점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든다.
- 생명과학Ⅰ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수능시험에서 받는 표준점수는 72점이지만 예시로 제시된 변환표준점수로 바뀌주면 65.22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물리Ⅰ의 백분위 최고점수는 97점에 표준점수 66점이었는데 이를 환산점수 바뀌주면 64.87점이 된다. 이 두 과목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6점이었지만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면 0.35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 수능의 영역 중 3개 영역을 선택하여 반영하거나 탐구영역을 1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경쟁률이 높고 합격선이 예상했던 참고점 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수영역을 선택하여 반영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선택반영대학의 지원을 지도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능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 반영대학 예시(2019 정시)〉

지역	대학명	모집단위	반영지표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가산점
							사/과탐	과목수		
서울	삼육대	자연계열	백분위	(40)	(40)	(40)	20	1	가산	수학(가) 10%
	성신여대	자연계열	백분위	(33.3)	(33.3)	(33.3)	(33.3)	2	가산	수학(가) 10% 수학(나) 5% 과탐 10%
경기/ 인천	가천대 일반전형2	기계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전자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백분위	국수(가)영탐(1) 중 택 3 점수 높은 순서대로 40/30/30 반영				1	가산	수학(가) 7% 과탐 5%
		간호학과 건축학부 설비소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백분위	국수영탐(1) 중 택 3 점수 높은 순서대로 40/30/30 반영				1	가산	수학(가) 7% 과탐 5%
	성결대	자연계열	백분위	(35)	(35)	(35)	30	1	가산	수학(가) 10%
	신한대	자연계열	백분위		60	(40)	(40)	1	탐구 대체	
	을지대(성남) 일반전형1	자연계열	백분위	(30)	40	(30)	30	2	가산	수학(가) 10% 과탐 10%
	을지대(성남) 일반전형2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등	백분위	(50)	(50)	(50)	(50)	2	가산	수학(가) 10% 과탐 10%
	차의과학대	스포츠의학	백분위	(25)	25	50	(25)	1	필수	수학(가) 10%
	한국산업기술대	수능우수자	백분위	(40)	60	(40)	(40)	2	가산	수학(가) 10%
충북	건국대 (글로벌)	자연계열	백분위	(50)	(50)	(50)	(50)	1	필수	수학(가) 5% 과탐 3%

- 2019학년도 수능 시험 후 영어의 1등급 학생의 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1등급 학생의 비율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었다.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던 이유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그 전의 학생들보다 영어 학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수능절대평가에 따라 영어가 쉬울 것이라는 예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영어를 등한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 2017~2019 수능 영어영역 1등급 학생 비율 〉

학년도	2017(원점수환산)	2018(절대평가)	2019(절대평가)
비율	7.1%	10.0%	5.3%

〈 2019 수능과 2018 수능 영어영역 등급별 누적 인원과 비율 비교 〉

등급	2019 수능		2018 수능		차이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1	27,942	5.30	52,983	10.03	-25,041	-4.73
2	103,507	19.64	156,739	29.68	-53,232	-10.04
3	201,084	38.15	291,014	55.11	-89,930	-16.96
4	311,260	59.06	385,885	73.08	-74,625	-14.02

등급	2019 수능		2018 수능		차이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누적인원	누적비율
5	398,377	75.59	441,276	83.57	-42,899	-7.98
6	454,596	86.26	476,852	90.31	-22,256	-4.05
7	493,732	93.68	501,902	95.05	-8,170	-1.37
8	517,911	98.27	520,343	98.54	-2,432	-0.27
9	527,025	100	528,064	100	-1,039	0

- 2019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시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일부 대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줄이려는 대학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주요대학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2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대학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증감 인원(명)
	수시이월인원 (명)	수시이월 비율(%)	수시이월인원 (명)	수시이월 비율(%)	
서울대	217	24	175	20	▲42
연세대	267	21	297	23	▼30
고려대	239	28	190	24	▲49
서강대	68	18	94	23	▼26
성균관대	69	9	184	20	▼115
한양대	12	1	32	4	▼20
이화여대	74	10	96	13	▼22
중앙대	40	3	98	7	▼58
경희대	39	3	91	6	▼52
한국외대	42	3	46	3	▼4
서울시립대	97	14	93	12	▲4
건국대	20	2	94	7	▼74
동국대	71	8	62	7	▲9
홍익대	136	9	57	4	▲79
숙명여대	77	10	60	7	▲17
계	1,468		1,669		▼201

- 정시전형에서 많은 대학은 영어등급을 대학 자체 환산점수로 바꾸어 반영한다. 환산점수는 수능 총점에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서울대와 고려대는 국어, 수학, 탐구 총점에서 영어등급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서울대는 5등급까지 감점이 2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은 급간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나 고려대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
- 영어 반영방법의 차이는 정시 지원패턴을 결정할 수 있다. 1등급인 경우는 지원의 선택권이 있지만 1등급이 아닌 경우는 감점하는 대학이나 등급별 편차가 작은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건국대 자연계열은 2등급까지 감점이 없다.

〈 2020 대학별 영어 등급별 환산점 예시 〉

대학	계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건국대	인문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150
	자연	200	200	196	193	188	183	180	170	160
경희대	전체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전체	0	-1	-3	-5	-7	-9	-11	-13	-15
광운대	전체	200	197	192	184	172	160	148	136	0
국민대	전체	100	98	95	90	85	80	75	70	0
동국대	전체	200	198	196	190	180	160	140	20	0
서강대	전체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서울과기대	전체	135	130	125	115	100	80	60	30	0
서울대	전체	0	-0.5	-1	-1.5	-2	-2.5	-3	-3.5	-4
성균관대	인문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자연	100	98	95	92	86	75	64	58	50
숙명여대	전체	100	95	85	75	65	55	45	35	25
연세대	전체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이화여대	전체	100	98	94	88	84	80	76	72	68
중앙대	전체	20	19.5	18.5	17	15	12.5	9.5	5.5	0
한국외대	인문	140	134.4	128.8	123.2	117.6	112	106.4	100.8	95.2
	자연	140	137.2	134.4	131.6	128.8	126	123.2	120.4	117.6
한양대	인문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100	98	94	88	80	70	58	44	28
홍익대	전체	200	195	188	179	168	155	140	123	104
서울교대	전체	3등급 이내								
경인교대	전체	100	95	90	85	80	75	70	65	60
공주교대	전체	200	190	180	170	160	140	120	100	80
광주교대	전체	225	215	205	195	185	175	165	155	145
대구교대	전체	100	95	90	85	80	75	70	65	0
전주교대	전체	96	90	80	70	50	40	30	20	0
진주교대	전체	100	97.3	94.6	92.0	89.3	86.6	66.6	46.6	26.6
청주교대	전체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춘천교대	전체	100	95	88	76	59	39	22	10	0
부산교대	전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교대 입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역별 가중치 없이 4개 영역을 고르게 25%씩 반영하는 상태에서 영어 등급별 환산점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교대는 별도의 환산점 없이 영어 3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 영어영역을 고려할 때 요강에서의 환산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형 총점에서의 점수 차이이다. 영어영역의 등급별 환산점에 영역별 반영비율을 적용하면 입시요강에 제시되어있는 점수 차이와는 다를 수 있다.
- 2017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적용된 수능 한국사의 경우 2017학년도에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지만 2018학년도에는 난도가 높아져 희망 등급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본 경우도 발생 하였다. 하지만 2019학년도에는 난도가 낮아져 정시모집에서 한국사 영역 때문에 크게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체로 문과 3~4등급, 이과 4~5등급이면 감점을 받지 않았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문계열 3등급, 자연계열 4등급이 수험생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한국사 등급이다.
-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인문사회계열이 124개 대학이고, 자연계열이 127개 대학이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능이 절대적인 전형요소라는 의미이다. 대학에 따라서 학생부를 일정비율 반영하기도 하지만 실질 반영률은 높지 않다. 주요 대학 중 정시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서울), 동국대(서울), 한양대(서울) 나군이다. 한양대(서울)는 가군은 수능100, 나군은 수능90+학생부10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군별 주요 대학 전형 방법 〉

대학	가	나	다
건국대	수능90+학생부10	수능90+학생부10	수능90+학생부10
경희대	수능100	수능100	
고려대		수능100	
국민대	수능100	수능100	수능100
동국대	수능90+학생부10	수능90+학생부10	
단국대	수능100	수능100	수능100
서강대	수능100		
서울과기대	수능100	수능100	
서울대	수능100		
서울시립대	수능100	수능100	
서울여대	수능100	수능100	수능100
성균관대	수능100	수능100	
숙명여대		수능100	
송실대	수능100	수능100	수능100
아주대			수능100
연세대		수능100	
이화여대	수능100		
인하대	수능100	수능100	수능100
중앙대	수능100	수능100	수능100
한국외대	수능100	수능100	
한양대	수능100	수능90+학생부10	
홍익대		수능100	수능100

나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의 대비

- 정시전형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마음이 복잡하다. 소신껏 정시까지 길게 바라보고 준비하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수시에서 불합격하고 정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이나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마음의 상처가 있고, 함께 수험생활을 했던 친구들 중 수시에서 희망대학에 합격한 친구가 있을 때 부러움과 조급함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 작용하여 합격 적정선을 제대로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 정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영역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2018학년도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에 따라 영역별 반영비율이 매우 다양해졌다.

〈서울소재 주요대학 정시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및 반영방법〉

대 학	반영지표	계열	영역 수	국어	수 학			영어	탐 구					제2외/한문	한국사	탐 구 수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과/직	사/과/직			
가톨릭대	백분위 +변환표준	인문	3	30		40		가감	30							2
		자연	3	30	40			가감		30						2
건국대	백분위 +변환표준	인문/예체	4	50			(30)	15			(30)				5	2
		인문	5	25		30		15			25			대체	5	2
			5	30		25		15			25			대체	5	2
		자연	5	20	30			15		30					5	2
			5	20	35			15		25					5	2
경기대	백분위	인문/예체	4	40			30	20			10					1
경희대	백분위 +변환표준	예체	3	50				20			30					1
		인문	5	25		35		15	20					대체	5	2
			5	35		25		15	20					대체	5	2
		자연	5	20	35			15		25					5	2
고려대	백분위 +변환표준	예체	2	55.6				가감			44.4					2
		일부학과	3	35.7			35.7	가감			28.6					2
		인문	3	35.7	35.7			가감	28.6							2
		자연	3	31.25	37.5			가감		31.25						2
광운대	백분위 +변환표준	인문	4	30			35	20			15					2
			4	30			25	20			25					2
		자연	4	25			30	20		25						2
			4	20	35			20		25						2
			4	20			35	20			25					2
국민대	백분위	예체	3	33.3				33.3			33.3					2
			3	30				50			20					2
			2	33.3				66.7								
		인문/자연	4	20			30	20		30						2
			4	30			20	20			30					2
덕성여대	백분위	예체	2	(50)			(50)	(50)			(50)					2
		인문/예체	4	35			20	20			25					2
		자연	4	20			35	20		25						2
동국대	백분위 +변환표준	인문/예체	5	30			25	20			20				5	2
		예체	4	40				20					35		5	2
		자연	5	25	30			20		20					5	2
동덕여대	백분위	예체	3	(33.3)			(33.3)	33.3			33.3					1
		인문/예체	4	30			25	25			20					2
		자연	4	25			30	25			20					2
명지대	백분위	인문/자연	4	30			30	20			20					2
삼육대	백분위	인문/예체	5	35			25	20					(20)	대체		2
		자연	5	25			35	20					(20)	대체		2

대 학	반영지표	계열	영역 수	국어	수 학			영어	탐 구					제2외/한문	한국사	탐구 수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과/직	사/과/직			
상명대	표준	예체	3	(40)			(40)	30			30					1
		인문	4	35			25	20			20					1
		자연	4	20			35	20		25						1
			4	30			30	20			20					1
			4	25	40			15		20						1
서강대	백분위 +변환표준	인문/자연	3	34.4			46.9	가감			18.7					2
서경대	백분위	예체	3	(40)			(40)	20					(40)	대체		2
		인문	4	40			10	25			25			대체		2
		자연	4	10			40	25			25			대체		2
서울과학 기술대	표준	예체	4	38				23.75					33.25		5	2
		자연	5	19	33.25			19					23.75		5	2
		인문/자연	5	28.5		23.75		19					23.75		5	2
서울교대	표준	전체	3	33.3			(33.3)	가감			(33.3)					2
서울대	백분위 +변환표준	예체	3	33.3			40	가감			26.7					2
		인문	3	33.3		40		가감					26.7			2
		자연	3	33.3	40			가감			26.7					2
			3	33.3	40			가감				26.7				2
			3	33.3		40		가감					26.7			2
서울시립 대	백분위 +변환표준	인문	5	30			35	25			10			대체		2
			5	30			30	25			15			대체		2
		자연	5	20	30			20		30						2
		예체	5	40			20	20			20					2
	표준	예체	3	40			30	30								
서울여대	백분위	예체	3	(33.3)			(33.3)	(33.3)			(33.3)					1
			3	33.3			(33.3)	33.3			(33.3)					1
		인문/자연	4	30			20	30			20					1
		자연	4	20			30	30			20					1
			4	20			30	20			20					1
성공회대	백분위	인문/자연	3	(33.4)			(33.4)	33.3					33.3			1
		인문	3	(33.4)			(33.4)	33.3					(33.3)	대체		1
성균관대	백분위 +변환표준	예체	2	50				가감			50					2
			2	60			40	가감								
		인문	3	40			40	가감			20					2
		자연	3	25	40			가감		35						2
성신여대	백분위	인문/예체	3	(33.3)			(33.3)	(33.3)					(33.3)			2
		인문	4	20			30	30	20							2
			4	20			30	30					20			2
		인문/자연	4	30			20	30					20			2
		자연	4	10			35	30		25						2
			4	10			35	30					25			2

대 학	반영지표	계열	영역 수	국어	수 학			영어	탐 구					제2외/한문	한국사	탐구 수
					가	나	가나		사	과	사/과	과/직	사/과/직			
세종대	표준	예체	2	50				50								
	백분위 + 표준	인문	4	30		30		20	20							2
		자연	4	15	40			20		25						2
			4	35			35	20			10					2
숙명여대	백분위	예체	3	40				30			30					2
			3	(35)			(35)	(35)			30					2
		인문	4	35			25	20			20					2
			4	30			30	20			20					2
		자연	4	25	35			20		20						2
			4	15	50			20		15						2
			4	35		25		20			20					2
			4	25		35		20			20					2
			3	(30)		50		20			(30)					2
숭실대	백분위 + 변환표준	인문	4	25			35	20			20					2
			4	35			25	20			20					2
		자연	4	20			35	20			25					2
			4	20	35			20		25						2
연세대	백분위 + 변환표준	인문/예체	4	33.33			33.33	16.67			16.67					2
		인문/자연	4	22.22	33.33			11.11		33.33						2
이화여대	백분위 + 변환표준	인문/자연	4	25		25		25			25			대체		2
		자연	4	25	25			25		25						2
중앙대	백분위 + 변환표준	인문/예체	3	40			40	가감			20			대체		2
		자연	3	25	40			가감		35						2
한국외대	백분위 + 변환표준	인문	4	35			30	15			20			대체		2
		자연	4	20	35			15		30						2
한국체육대	표준	예체	4	(30)			(30)	(20)					(20)			1
한성대	백분위	인문/자연	4	(40)			(40)	25			15					1
	백분위	예체	3	40				40			20					1
한양대	백분위 + 변환표준	일부학과	4	30		30		10	30							2
			4	45		25		10	20							1
		인문	4	30		40		10	20							2
			4	45		15		10	30							1
		자연	4	20	35			10		35						2
			4	30		40		10	20							2
			4	45	15			10		30						1
홍익대	표준	예체	3	(33.3)			(33.3)	33.3			(33.3)					2
		인문	4	25			25	25			25					2
		자연	4	16.7	33.3			16.7		33.3						2

- 자연계 학생은 수학 (가)형과 (나)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학 (가)형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수학 (가)형과 (나)형 둘 다 인정하는 대학이 있다. 중위권 대학부터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학 (가)형과 (나)형을 모두 반영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가)형 응시자에게만 주는 가산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산점을 고려할 때는 가산비율과 반영지표(백분위, 표준점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과탐을 선택하는 자연계 학생 중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학생이 2019대입에서는 77,239명(과탐 응시자 중 32%)이나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해서는 수능반영영역이 수학(가/나)+과탐 조합의 대학이나 수학(가/나)+사/과탐 조합을 사용하는 대학을 눈여겨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학(가/나)+과탐 반영 대학 〉

지역	대학
서울	가톨릭대(자연과학부, 생명환경학부), 광운대(건축학), 국민대, 덕성여대, 상명대(일부 제외), 성신여대(간호(자연), 글로벌의과학) 등
경기	인천대, 차의과학대(바이오공학, 식품생명공학, 의생명과학) 등
비수도권	강원대(일부 제외), 경북대(일부 제외), 고려대(세종)(일부 제외), 부산대(일부 제외), 전북대(도시공학, 반도체과학, 생물환경화학, 전자재료공학), 제주대(물리교육, 생물교육), 충남대(일부 제외), 충북대(일부 제외) 등

〈 수학(가/나)+사/과탐 반영 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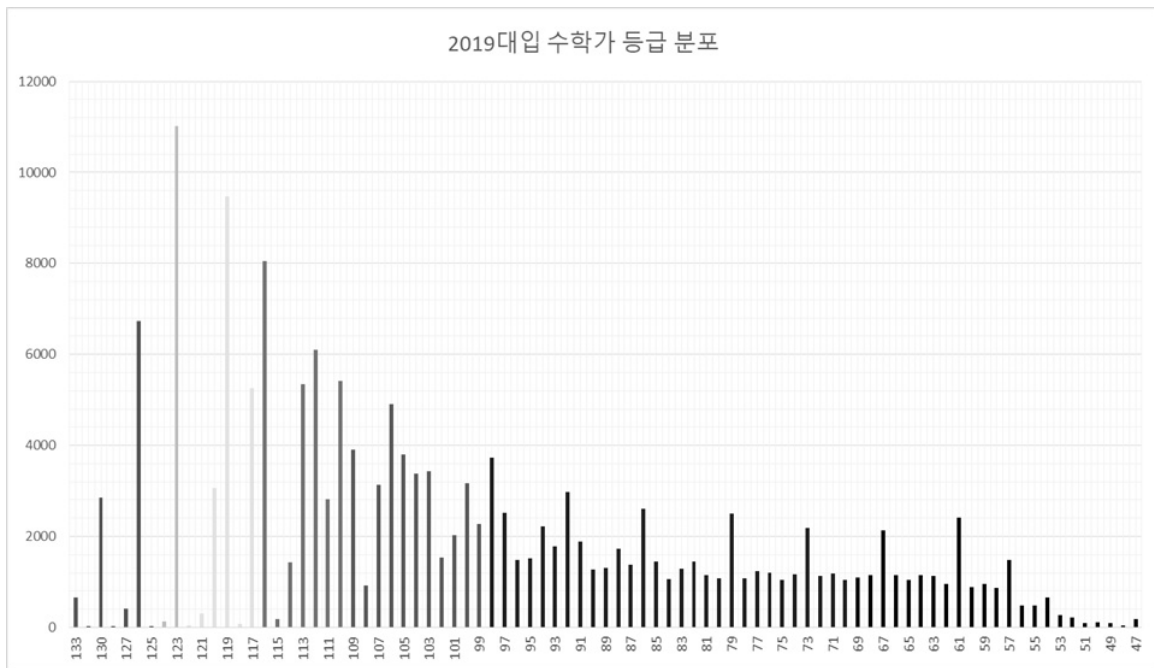
지역	대학
서울	KC대(간호, 식품영양), 가톨릭대(미디어기술, 생활과학, 정보통신, 컴퓨터정보), 고려대(가정교육), 광운대(정보융합), 동덕여대, 상명대(식품영양, 의류),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간호, 의류), 서울여대(일부 제외), 성신여대(간호(자연), 글로벌의과학 제외), 세종대(창의소프트학부), 숭실대(일부), 한국성서대(간호, 컴퓨터소프트웨어), 한성대(상상력인재학부)
경기	대부분의 경기소재 대학
비수도권	대부분의 비수도권 대학과 일부 지방소재 국립대학교

- 수학(가)형의 가산점을 고려할 때는 반영지표에 유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다. 보통 수학(가)형이 3등급이내인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가)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수학(가)형의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가산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가산점을 받게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표준점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수학(가)형 가산점을 주는 대학 중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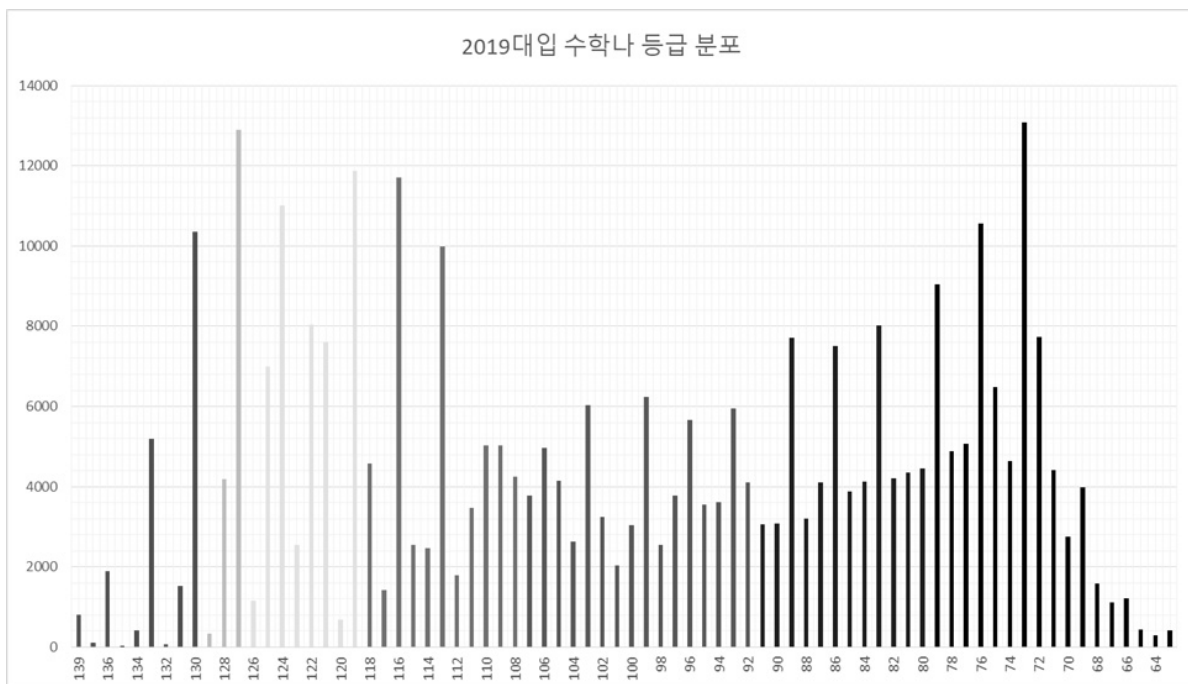
〈 수학 (가)형과 (나)형 가산점에 따른 유불리 비교 예시 〉

구분	지표	성적	가산 15%	가산점수	비교
(가)형 4등급	표준점수	115	17.25	132.25	(가)형 > (나)형
	백분위	65	9.75	74.75	(가)형 < (나)형
(나)형 2등급	표준점수	130	-	130	-
	백분위	90	-	90	-

-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현재 수능체제에서 수학(가)의 응시자 상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현재 정시 입시체제를 살펴보면 수학(가)형만을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소재 중상위권 대학과 지방소재 거점 국립대학들이다. 바꿔말하면 그 이외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굳이 수학(가)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학(가)형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32%의 학생이 수학(나)형으로 이동한다. 수학(나)형으로 이동한다하더라도 무조건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이 강한 수학(가)형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 위의 그래프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수학(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의 표준점수 분포표이다. 상위권에 매우 몰려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흩죽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중하위권학생이 대거 수학(나)형으로 이동한 것도 이러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위의 그래프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수학(나)형을 응시한 학생들의 표준점수 분포표이다. 수학(나)형은 수학이 약한 학생들도 대부분 응시하기 때문에 비 정상적인 M자 구조가 나타난다.

다 정시 지원 전략

- 정시 선발 인원이 전년도보다 3,800여 명이 줄어들었다는 점과 영어 영역 성적 절대평가로 인한 영어 반영방법 등이 대학별로 차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0 대입 정시는 전년도보다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와 선택과목간 불균형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수능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절대평가로 실시된 영어 영역의 경우 첫 해인 2018대입에서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10.03%,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19.65%로 예상했던 것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30%에 가까운 비율이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2019대입에서는 1등급 비율이 5.3%, 2등급 비율은 14.34%로 첫 해인 2018학년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면서 영어 영역으로 인해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영어 영역 성적에서 1등급을 목표로 꾸준히 학습하고,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자연계 수험생의 경우 공통 영역으로 응시하는 한국사에서 의외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칫 감점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사 4등급 또는 5등급 정도만 되면 감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 성적이 5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틈틈이 학습하도록 한다.
- 일부 대학에서는 계열 또는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 전체 영역을 반영하지 않고 선택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이 성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영역들은 실수를 줄이면서 학습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탐구영역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탐구영역 선택은 자신이 가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학교에서 내신 성적과 관련이 있는 과목, 수험생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인문계열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사탐 1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강점이 있다면 살리는 것이 좋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도 탐구 영역 선택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 정시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군별 및 계열별 모집 인원, 수시 이월인원, 전년도 추가 합격 인원
 - 영역별 반영 비율
 - 반영 지표(백분위/표준점수/등급)
 - 영어 및 한국사 반영 방법
 -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
 -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사탐 대체 여부
 - 전년도 경쟁률 및 마지막 날 발표되는 경쟁률
 - 학생부의 영향력(학생부 반영 대학의 경우)
 - 배치 참고점 및 대학 환산점수

